

文化暢達을 위한 條件造成論

— 圖書館과 圖書館學 —

鄭 駁 謨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I. 序 論

圖書館學의 由來와 歷史는 이미 오래다 할지라도 發生初期부터 그것이 學問의 體系를 갖춘 것이 아니라 圖書館業務活動에 必要한 多角的인 知識이며 技術로서 業務의 方法을 學習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30年을 前後하여 圖書館學이 學問이나? 技術이나? 學問은 一般的으로 一定한 體系下에 本質的인 하나의 原理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圖書館學은 本質的인 原理가 무엇이나 하는 등의 많은 批判과 反省이 造成되었다. 그후 學問으로서의 體系化를 試圖하는 많은 著書와 論文들이 出現하였고 그중에 특히 Ranganathan 이나 Pierce Butler 에 의하여 學問에로의 많은 비존을 보였으나 그 體系化는 역시 未備한 것으로서 圖書館學은 依然히 實務를 위한 知識과 技術 및 보다 發展的인 業務의 方法을 研究하는데 不過하였다. 그리하여 現在까지의 圖書館에 관한 研究는 圖書館管理法이라든가 圖書館經營法이라고 하여 技術을 研究하는 것이 主였다.

技術의 研究는 經驗에서 歸納한 方法의 記述에서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發展하든 그것만으로써는 局部的이며 主觀的이라는 것을 免할 수 없다. 圖書館에 관한 科學的 研究는 이러한 初步的인 段階를 脱却하여 오늘 날까지와 같은 技術面의 研究뿐만 아니라 새로운 學問的 領域에 있어서 獨自的으로 體系化되어야 할 必要性에 直面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圖書館存立의 客觀的인 社會的 教育的 文化的 原理를 追求하여 이것을 根據로 하여 새로운 圖書館의 奉仕活動을 展開하기 위한 基本的인 知識이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必然性에 直面하여 本稿는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圖書館의 本質을 糾明하고 圖書館學의 意義와 目的을 새로이 밝히어 圖書館學의 體系化를 試圖하는 것이다.

II. 現代圖書館의 定義

現在까지의 圖書館에 관한 定義는 주로 圖書館의 現

象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A.L.A.의 "Glossary of library terms"의 圖書館에 관한 定義에 의하면, "圖書館이란 ① 讀書, 調査, 研究를 위해서 整理하여 管理된 圖書 및 類似資料의 集書 ② 圖書 및 類似資料가 讀書, 調査 및 研究를 위해서 整理하여 管理되고 있는 舍屋 또는 一群의 舍屋 또는 建物이다"라고 한다.

以上の 定義를 간단히 解說하면 圖書館이란 ① 讀書하고 調査하고 研究를 하는데 寄與하기 위해서 整理하여 管理되고 있는 圖書 등의 모든 文獻資料와 ② 이러한 모든 圖書資料를 管理保存하고 있는 建物을 意味한다는 것이다.

한편 J.L.A.의 "圖書館ハンドブック"에 의하면, "圖書館이란 記錄된 知的文化財를 蒐集, 保存하여 利用에 寄與하는 社會機關이다"라고 한다.

또 한편 韓國圖書館協會의 "圖書館用語集"에 의하면, "圖書館이란 圖書 및 그와 類似한 資料를 蒐集, 整理, 保管하여 讀書, 調査, 研究, 參考, 趣味·娛樂"에 이바지할 目的으로 組織 運營되는 施設"이라고 한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이나 日本이나 우리나라 또는 其他 모든 나라들 까지도 圖書館에 관한 正義는 그 表現方法에는 다른 面이 있다 할지라도 그 內容은 다를 바가 없다. 結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圖書館은 過去의 모든 圖書 및 記錄類가 現代의 多量으로 生産되는 圖書 등의 모든 文獻資料 가운데서 各圖書館에 有用할 資料들을 選擇蒐集하여 그것을 秩序있게 整備하고 讀書 調査 研究 등 여러 方面의 利用에 寄與하는 機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定義들은 結局 圖書館의 現象을 주로 表現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 現象보다도 그 理念이다. 다시 말하면 圖書館이 그 利用者들이나 社會에 寄與하는 窮極의 目的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圖書館이 資料를 選擇·蒐集하여 그것을 整理 組織하는 것은 利用者들로 하여금 그들의 時間을 節約하여 보다 效果의으로 利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手段이며

方法이다. 그러나 現代圖書館은 더 나아가서 參考業務와 對外活動, 書誌活動 또는 情報活動 등을 더욱 重要視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參考業務는 간단히 말하면 利用者들의 時急한 問題의 解決이나 斷片的인 知識을 얻기 위한 質問에 解答하거나, 要求에 따라서는 讀者들의 情狀에 알맞는 보다 有效할 資料를 案内하고 或은 指導하는 등 直接 一般의인 利用者들을 相面하여 베풀어 주는 奉仕인 것이다. 對外活動을 通해서는 可能한 限 많은 사람들에게 圖書館利用을 啓發하고 圖書館의 計劃을 樹立하기 위한 地域社會調查, 讀書人口調查와 自動車巡迴 文庫活動, 他圖書館이나 他文化機關과의 文獻資料의 交換, 其他 讀書를 普及하기 위한 行事들을 하는 것이다. 書誌活動과 情報文獻活動은 주로 研究者들에게 보다 能率的인 調查와 研究를 할 수 있도록 書誌를 案内하고 資料를 周旋하고 協助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圖書館은 學問의 發展과 全般的인 文化의 發展을 보다 效率的으로 促進시키는 暢達作用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現代圖書館의 使命이며 그의 窮極의 目的인 것이다. 圖書館의 資料를 蒐集하고, 整理 組織하고 이것을 永續的으로 效用되게 하며, 參考業務, 書誌活動, 情報文獻活動을 하는 등 모든 圖書館奉仕活動은 結果的으로 積極的인 文化暢達을 위한 手段이며 方法인 것이다. 그리하여 筆者는 圖書館을 積極的인 「文化暢達을 위한 奉仕機關」이라고 定義한다. 좀 具體的으로 表現하면 「圖書館은 文化의 暢達을 위해서 圖書 및 其他 文獻資料를 選擇 蒐集하여 整理 組織, 保全하고 讀書, 調查 研究에 效用되게 하는 奉仕機關이다.」

III. 圖書館學의 定義

現在까지 圖書館學에 관한 定義도 圖書館에 관한 定義와 마찬가지로 現象論에 不過하다.

Schrettinger의 著書, *Handbuch der Bibliothekswissenschaft*(1834年版)에 의하면, “圖書館學이란 要件에 確固한 原則 위에 體系의으로 세워진 하나의 最高의 原則에 到達하는 것이며 圖書館을 效果的으로 組織하기 위하여 必要한 敎則을 總括한 것이다”라고 하여 그는 圖書館學도 他科學과 마찬가지로 그 體系에 基礎를 두어야 한다고 陳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最高의 原則이 무엇인가는 不明하다.

한편 獨逸의 Meyers 百科辭典(Meyers Grosses Konversationslexikon, Lpz)에 의하면 圖書館學을 定義하여 “圖書館에 關한 理論 및 技術에 대한 知識의 總和를 系統的으로 秩序를 세운 것을 意味한다”고 한다.

그러나 圖書館學의 語義는 좁은 意味에서 整理와 管理의 領域만을 意味하는 例가 많다. 그리하여 現在까지

英國에서나 美國에서도 圖書館에 關한 研究는 理論보다도 技術面을 中心으로 發達하고 있기 때문에 英國과 美國에서 出版된 圖書館에 關한 研究書에는 圖書館管理法(Library administration)이라든가 圖書館經營法(Library economy)이라든가 하는 書名이 주어진 圖書가 많으며 그 內容도 整理와 管理의 研究를 主로 한 것이 많다. 더욱이 美國에서도 20世紀 初期에 Library science 라는 말을 使用하기 始作했으나 A.L.A.의 「Glossary of library terms」에는 “圖書館學이란 印刷 또는 筆寫된 記錄類를 認識하고, 蒐集하고 整理하여 利用하는데 關한 知識 및 技術이다”라고 定義했고 「Dictionary of Education. N.Y. 1948」에도 同一한 記述을 볼 수 있다.

그리고 韓國圖書館協會의 “圖書館用語集”(1966年)에 의하면, “圖書館學은 印刷 또는 手書된 文獻을 認識하고, 蒐集, 整理, 組織, 運用하는 知識과 技術”이라고 한다. 이것도 거의 同一한 表現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注目되는 것은 Library Science 라는 定義가 Library economy의 用語와 거의 같은 意義로 解釋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런가 하면 佛蘭西에서는 圖書館의 研究에 Science 라는 語義를 가진 文獻은 적고 *Bibliothèque économique* 라고 普通 使用되고 있으며 *Larousse* 百科辭典에 「圖書館學」은 「圖書의 整理, 保存 및 圖書館의 管理에 對한 技術이다」라고 한다.

以上에서 各國에서의 圖書館學의 語義를 살펴본 바와 같이 圖書館學이라 할지라도 거의가 圖書館管理의 立場에서 圖書館의 技術이나 그 運籌에 대해서 多少라도 그 合理化를 問題로 하고 있을 뿐이며 그 學의 意義를 明示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傾向 가운데 「American College Dictionary, N.Y. 1948」에는 「圖書館學이란 잘 組織된 圖書館業務(특히 Service)에 관해서 가져야 할 知識과 技術의 統合體이다」라고 記述한 것은 크게 注目되는 바이다. 그것은 圖書館學이 主로 圖書館 Service 活動에 必要한 學問이라는 것을 明白히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생각할 것은 圖書館에 관한 多角的인 知識이나 技術이 圖書館의 奉仕活動을 위한 것이라면, 圖書館奉仕의 大前提, 다시 말하면 그 意義와 目的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現代圖書館의 奉仕活動의 窮極의 目的은 積極的인 文化의 暢達에 있다는 것은 이미 前章에서 말한 바이다. 그러므로 圖書館學의 意義와 目的은 積極的인 文化暢達의 原理와 體系 및 方法을 研究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筆者는 圖書館學을 文化暢達의 原理와 體系 및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라고 定義하고 그 原理와 體系를 說明하고자 한다.

IV. 文化暢達の原理(=圖書館奉仕原理)

古代 貴族社會나 封建社會의 文化는 貴族이나 一部 特殊階級의 專有的 것이었으며 教育도 特權階級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世紀부터 점차 市民權이 擴大되자 文化와 教育은 貴族文化, 貴族教育에서 大衆文化, 大衆教育으로 移行되어 現代의 民主社會에 이르러서는 거의 全人類가 平等하게 文化를 享有할 自由와 權利를 가졌고 教育을 받을 權利와 義務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全人類가 平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와 義務를 가졌고 文化를 享有할 自由와 權利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自由를 누리고 權利와 義務를 履行할 수 있는 條件造成이 問題이다.

教育面에 있어서는 世界 各國이 義務의으로 最少限의 基礎的인 教育을 받을 수 있는 施設과 制度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것은 個人的인 面에서 보면 人生의 一定한 期間內에서 끝나는 것이다. 또한 一定한 期間 동안에 그보다 高次的인 形式教育을 더 받은 者라 할지라도 教育이 그것으로써 完全히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全然 無意味한 것이다.

形式教育의 다음에는 各者의 自由教育이 連續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變遷의 速度가 빠른 現代社會에서 生活하는 民主市民은 各者의 生活 가운데 自由로이 時代에 適應하는 知識과 教養을 넓히어 自主的인 人間으로 育成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眞正한 意味에서 民主市民으로서 文化를 享有하는 것이 될 것이다.

勿論 오늘 날 라디오, T.V., 新聞, 大衆雜誌 등의 Mass Media가 發達하여 널리 普及되고 있으므로 市民들은 自由로이 時事的인 社會變遷의 趨勢나 메르는 生活에 必要한 斷片的인 知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部分的인 文化를 享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Mass Media의 普及도 地域社會의 坊坊谷谷에 까지 미치기는 困難하며 또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眞正한 知識과 思想과 技術을 얻고 教養을 넓히는 媒介物은 역시 圖書 및 文獻이다. 한편 民主市民은 個人的으로 圖書類의 購讀의 自由도 許容된다. 그러나 이것은 生活經濟의 面에서 누구에게나 繼續的으로 可能的인 것 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하여 現代의 民主社會에 있어서는 이러한 自由教育과 文化의 享有를 위해서 가장 적은 經費로 가장 많은 市民에게 가장 效果的으로 便利하게 利用할 수 있는 方法으로서 公共圖書館이라고 하는 것이 社會制度로서 登場하게 된 것이다. 歷史的으로 보아 公共圖書館의 始初는 이미 3,000餘年前 Greece의 社會에도 있었다고 하나 公的인 社會制度로서 出現한 것은 19世

紀末期부터이며 現代에는 各地域社會의 末端에 이르기까지 圖書館을 設置하고 모든 市民이 自由로이 利用할 수 있도록 社會的으로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現代社會는 機能社會이며 組織社會라고도 불리워진다. 社會의 모든 構成은 機能別로 組織되어 있으며 그 總體的인 機能은 結局 人類文化의 發展과 福祉社會의 建設에 貢獻하는 것이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文化의 發展에 貢獻하는 機關은 우선 各級學校와 教育機關, 各級研究所, 學術團體가 가장 重要한 것이며 文化館, 藝術館, 博物館, 政府機關, 新聞社, 通信社, 出版機關, 放送局, T.V., 映畫館, 劇場 등 모든 文化機關과 모든 產業機關까지도 그 機能과 價値가 크든 작든 간에 文化의 發展을 위하여 各各의 分業的 機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文化의 發展에 寄與하는 機關을 움직이는 것은 人的要素라고 볼 수 있으나 이 人的要素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結局 知識, 思想, 經驗, 技術 및 idea이다. 한편 이러한 知識, 思想, 經驗, 技術, idea 등은 古來로부터 現在까지 社會가 進歩發展하는 過程에서 많은 發見과 創造가 거듭되어 圖書 및 文獻이라고 하는 媒介物로서 傳達되고 保存되고 또한 그것은 다음 世代에 代代로 傳受되고 또 다시 새로운 發見과 創造가 거듭하여 追加蓄積되고 增大하여 現在의 文獻宇宙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現在의 時點에서 생각할 때 우리 人類의 文化를 더욱 能率的으로 效果的으로 發展시키기 위해서 이 文獻宇宙 즉 知的인 總文化財를 어떻게 運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 理想的인 方法은 우선 以上에서 말한 바와 같이 文化의 發展에 寄與하고 있는 모든 教育機關, 文化機關, 政府機關에 各各 圖書館을 設置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各機關의 各分野에서 必要로하는 圖書 및 文獻을 選擇 蒐集하고 그것을 利用에 便利하도록 整理組織하고 또한 이러한 文獻資料를 利用者들에게 案内하고 혹은 指導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各分野의 研究者와 一般利用者로 하여금 時間과 勞力을 節約하여 가장 效果的으로 그들의 知識 思想 經驗 技術 및 idea를 發展시키기 하는 同時에 그 發展의 結果를 다시 文獻으로 傳承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現代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모든 文化的機關과 各地域社會의 市民들이 圖書館을 通하여 그들이 必要로 하는 圖書와 文獻을 가장 效果的으로 自由로이 利用할 수 있도록 最大限의 可能的인 條件을 造成해 줌으로써 文化의 發展을 效果的으로 促進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文化의 暢達을 圖謀하는 것이다.

日本の 裏田武夫는 圖書館自體에서 이루어지는 現象

을 抽象化하여 Conditioning 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Conditioning” 즉 一定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條件을 造成하는 作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無限의 外界에서 一定한 空間(室內)에 들어오는 空氣를 그 溫度, 細菌, 먼지, 汚染度 등을 制御하는 Air-Conditioning에 比喩할 수 있을 것이다. 圖書館은 無限의 資料源에서 利用者에 이르는 사이에서 一定量의 資料에 關해서 蒐集, 配合, 解釋, 指導 등의 Conditioning을 造成하는 作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註1) 이것은 좁은 意味에 있어서 圖書館의 機能現象을 말한 것이나 이것은 또한 넓은 意味의 文化暢達의 原理에도 適用된다.

結論으로 말하면 積極의인 文化暢達의 原理는 모든 文化가 가장 效果的으로 迅速히 發達할 수 있도록 最善의 條件을 造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날 널리 使用되고 있는 “圖書館奉仕”라고 하는 말은 넓은 意味에서 “文化暢達을 위한 奉仕”라고 하는 말과 共通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文化暢達을 위한 原理를 圖書館奉仕의 原理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圖書館學은 文化暢達을 위한 條件造成의 方法을 研究하는데 그 意義와 目的이 있는 것이다.

V. 圖書館奉仕의 體系(=文化暢達의 體系)

오늘 날 圖書館奉仕의 體系는 一般의으로 圖書館自體에서의 奉仕體系만을 意味하는 例가 많다. 그러나 圖書館의 奉仕活動이 社會的인 面에서 文化의 暢達作用이라고 하는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면 圖書館奉仕의 體系는 國家의 基本法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現代의 民主社會는 法治社會이며, 法治社會에 있어서는 國家의 憲法을 바탕으로 이에 따르는 其他 諸法律에 의하여 組織化되고 機能化되고 있으므로 圖書館만의 獨自의인 文化暢達作用이란 不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憲法은 本來 國家機關에 대하여 義務를 課하는 規定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國民은 憲法에 의하여 思想 및 良心의 自由, 信仰의 自由등의 自由權이 保障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國民이 社會的인 生存을 確保하는 保障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憲法가운데에는 國民이 人間다운 生存을 享有할 수 있도록 國家權力이 強力히 干涉하는 自體를 國民의 權利로서 要求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社會權인 것이다. 이 때문에 國家가 스스로 充分한 施策을 行하여 可能한 限 國家自身이 積極的인 措置를 取할 義務가 負課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憲法에 있

(註1) 日本圖書館協會 編 “圖書館ハンドブック, 增訂版. 東京, 同協會, 1963. P.27

어서 圖書館에 가장 基本的 關聯을 가지는 條項은 第十六條 一項에 있는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教育은 學校教育에 限定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世界의 成文憲法中에 社會權으로서 圖書館을 明確히 밝힌 것은 極히 적으나 中華民國 憲法은 그 第94條에 “……國家는 各種의 學校 및 其他의 文化教育機關을 設立하고, 점차 그것을 擴大하고 이것에 의하여 公民이 이 權利를 享受하는 것을 保證한다”(岩波文庫人權宣言集)고 어느 정도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明確한 例로서는 Poland 人民共和國憲法은 그 第62條에 “(1) Poland 人民共和國의 市民은 文化의 成果를 利用하고 民族文化의 發展에 創造的으로 參加할 權利를 가진다. (2) 이 權利는 圖書館, 書物, 定期刊物, Radio, 映畫, 劇場, 博物館, 展覽會, 文化館, group, 讀書室을 發展시키고 그것을 都市와 農村의 勤勞者의 處理에 맡길 것, 人民大衆의 文化的인 創造를 全面的으로 獎勵하고 그것을, 活氣를 줄 것, 創造力이 있는 才能을 發展시킴으로써 極히 廣範하게 保障시킨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憲法을 바탕으로 하여 圖書館의 奉仕活動과 根本的으로 關係를 가지는 法律은 圖書館法이다.

圖書館法은 本來 그 國家의 圖書館事業의 內容을 規制하고 앞으로의 圖書館政策의 方向을 提示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國家의 文化暢達을 위해서 政府가 모든 市民 모든 機關에 대해서 어떻게 奉仕할 것이라는 計劃과 方法을 提示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圖書館法(1963年 10月 28日 公布 法律 第1424號)은 第一條에 「圖書館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國民의 教育과 文化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提示하고 이에 따른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그러하여 政府는 圖書館法을 基礎로하여 圖書館政策을 樹立하고 圖書館의 發展과 圖書館을 通하여 文化를 發展시키기 위한 努力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圖書館奉仕를 위한 體系上的 第一條件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政府의 이러한 政策에 따라서 各圖書館은 그 運用方針을 세우고 그 方針에 따라서 圖書館의 具體的인 奉仕體系를 樹立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各地域 社會, 學校, 團體, 機關 등에 所屬하는 各圖書館은 圖書館自體의 奉仕活動을 效率化하기 위해서 運營上的 組織體系를 整備하는 것이다.

圖書館自體의 奉仕體系는 이것을 크게 셋으로 區分해서 考察할 수 있다. 그 하나는 圖書館員이 圖書館資料를 選擇해서 蒐集하는 機能이며, 둘째는 그 選擇 蒐集된 資料를 體系의으로 整理組織하는 機能이며, 셋째

는 整理組織된 圖書資料를 利用者에게 效果의으로 利用하도록 案内指導하는 機能이다.

① 여기에서 圖書館資料의 選擇 蒐集의 機能은 圖書館이 古來로부터 傳受해온 知的 文化財와 現代의 市民社會 가운데 產出되는 多種多樣한 知的文獻과 Mass Media 가운데에서 그 圖書館이 處해있는 地域社會의 市民에게 有效適切한 圖書館資料를 그 圖書館의 限定된 豫算의 範圍內에서 점차적으로 選定하는 것이다. 圖書館資料를 選擇한다고 하는 것은 이 無限한 文獻宇宙 가운데서 가장 有用한 知識과 가장 健全한 娛樂의 資料를 求해서 市民에게 利用하게 하여 市民의 福祉向上과 健全한 文化的發展을 圖謀하는 것으로서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圖書館奉仕가 文化暢達의 機能을 할 수 있는 가장 重要한 一次作業인 것이다.

② 整理組織의 機能은 選擇蒐集된 圖書資料를 體系的으로 組織해서 整理하는 것이다. 圖書館에 蒐集된 圖書나 情報資料는 可能한 限 親近하고 利用에 便利하도록 整理되어 市民의 讀書慾을 刺戟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圖書館 資料를 整理하는 目的은 市民에의 能率的인 奉仕를 前提로 하는 것이므로 圖書館이 選擇한 圖書資料를 帳簿上에 登錄하고 一定한 秩序下에 體系的으로 書架上에 排列하기 위해서 分類하고 다시 이것을 여러 角度에서 檢索할 수 있도록 目錄을 編成하는 作業 等은 모두 奉仕를 本位로 하고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圖書館의 技術分野에 屬하는 것으로 從來에는 이것이 圖書館學의 中心課題였던 것이다.

③ 圖書館 案内指導機能은 圖書館員이 直接 利用者에게 接해서 베푸는 活動이다. 圖書館資料는 選擇蒐集되어 體系的으로 整理組織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利用者 全般에 걸친 圖書館 任意의 것으로서 그 組織은 複雜하여 모든 市民이 그 利用에 能熟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圖書館員은 圖書館의 利用方法을 指導하고 資料를 案内하고 提供하고 資料를 調査하고 讀書를 相談하는 等 各各의 利用者에게 有用한 知識을 얻도록 혹은 健全한 娛樂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現代의 市民社會에서 良識있는 市民을 育成하고 健全한 文化를 發展시키는데 現代 圖書館의 社會的인 使命이 있는 것이다.

오늘 날 學校兒童에게 奉仕하기 위해서 學校圖書館, 一般成人에게 奉仕하기 위한 公共圖書館, 教育과 研究를 위해서 大學圖書館, 어느 主題를 調査研究하기 위한 專門圖書館이 出現하여 各各 그 設置의 目的이나 機能은 다르다 할지라도 圖書館의 奉仕機能으로서의 本質은 各種 圖書館에 共通하는 것이다.

VI. 結 論

以上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圖書館은 積極的인 文化暢達을 위한 奉仕機關이다. 從來의 圖書館에 관한 定義 즉 “圖書 및 그와 類似한 資料를 蒐集, 整理, 保管하여 讀書, 調査, 研究 등의 利用에 이바지 한다”고 하는 것은 文化的 暢達을 위한 手段과 方法이며, 그 手段과 方法自體에 意義가 있는 것은 아니다. 要是 어떠한 目的을 위해서 “圖書館이 圖書 및 그와 類似한 資料를 蒐集, 整理, 保管하여 讀書, 調査, 研究 등의 利用에 이바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窮極의 目的은 積極的인 文化的 暢達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圖書館學은 形式的으로 말하면 文化暢達의 原理와 體系 및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이다. 한편 文化暢達의 原理는 文化가 效果의으로 迅速히 發展할 수 있도록 最善의 條件을 造成해 주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므로 實際的인 面에서의 圖書館學은 積極的인 文化暢達을 위한 最善의 條件을 造成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科學인 것이다.

그러면 現在까지도 問題가 되고 있는 圖書館學의 體系 즉 圖書館學이라고 하는 範疇內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各學科目사이의 必然的인 紐帶問題는 解決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圖書館學을 形成하고 있는 各學科目은 積極的인 文化暢達을 위한 最善의 條件을 造成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各各의 分科라는 것이 明白해지는 것이다.

圖書 및 圖書館에 관한 歷史的인 研究는 他科學에서의 主題史와 마찬가지로 歷史的變遷過程에서의 現在의 位置를 살피고 未來에의 方向을 設定하기 위한 것이며 圖書館法이나 行政이나 管理 組織 등을 研究하는 目的은 文化暢達을 위한 根本的이며 基礎的인 計劃과 方針을 造成하기 위한 것이다. 圖書館資料自體에 관한 研究, 즉 圖書의 評價와 選擇에 관한 研究는 現代의 범람하는 文獻宇宙 가운데서 各圖書館의 利用者들에게 보다 有效한 資料를 蒐集하기 위한 方法을 研究하는 것이다. 圖書館資料의 組織體系에 관한 研究 즉 分類法이나 書錄法, 書誌作成法을 研究하는 目的은 圖書館資料를 秩序있게 整備하여 迅速히 利用될 수 있도록 奉仕에 對備하기 위한 것이다. 直接的인 奉仕에 관한 研究 즉 一般參考業務나 主題別書誌 및 Documentation은 最一線에서의 效果的인 利用을 위한 方法을 研究하는 것이다. 그리고 其他의 諸科目도 同一한 目的과 意義를 가지거나 혹은 그 補助的인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圖書館奉仕活動은 圖書館學에서 이루어진 研究의 結果를 應用하여 積極的인 文化暢達을 위한 條件造成을 實踐하는 것이다. 또한 圖書館奉仕의 體系는 一般的으로 圖書館自體에서의 奉仕體系만을 意味해 왔으나 이것은 當然히 그 나라의 憲法을 基礎로한 圖書館法과 圖書館行政 및 政策에서 비롯해서 圖書館 第一線의 奉仕活動에 이르기까지 說明되어야 할 것이다.